『심조만유론』번역의 제 문제

한성자 *

목 차

- 1. 서론
- 2. 기존의 연구: 유식 사상과 여래장 사상의 대립
- 3. 일심 사상에 대한 여래장연기설
- 4. 일심 사상에 대한 중관·유식설
- 5. 결론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백용성 대종사의『心浩萬有論』의 한글번역과 관련하여 그 핵심 어가 되는 唯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밝혀보았다. 그에게서 유심은 本源眞心. 眞心, 大光明藏眞性, 一心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면서 『大乘起信論』의 일 심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기신론』의 일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를 여 래장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와. 중관과 유식학파의 사상을 종합한 것으로 보는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起信論疏』와 『大乘起信論別記』 에 나타난 원효의 시각은 『기신론』을 중관과 유식사상의 종합으로 보는 것이라 는 견해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서 『심조만유론』의 유심을 분석한 결과 용성에게 있어서 본원진심은 여래 장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심진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백용성 대종 사는 일심을 중관·유식설의 종합으로 보는 원효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는 결론을

^{*} 전 동국대학교 BK21 연구교수

내렸다. 따라서 원효와 백용성 대종사를 법성종의 전통에서 이해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서론

『心造萬有論』은 백용성 대종사가(이하 용성으로 약칭함) 3.1운동으로 인한 옥중생활에서 불전번역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후, 출옥해서 만든 三藏譯會에서 처음으로 출판한 저술로서 1921년 9월 29일에 간행되었다.1) 한용운이 "佛敎를 宣布하라면 平易한 한글 혹은 鮮漢互用文으로 飜譯 編纂 創作 等을 勵行하지 아니하면 안이 될지니"2)라고 1931년에 말한 것을 이미 선취하고 있어서 『심조만유론』은 국한문을 혼용하여 불교교리를 밝힌 창작물이다. 창작이라고 하지만 그 목적은 위의 한용운의 글에서 계속해서 "創作에 있어서 勿論 各 方面이 있것으나 主로 佛敎敎理의 時代思潮에 適應한 占을 만히 指摘하고 論據하야 廣大 深遠한 佛敎敎理의 聚生을 제도하는 方便에 있어서 가추지 안이 함이 없는 것을 一般에게 알녀 주는 것이 가장 必要할 것"3)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대로 교리에 근거해서 그것을 쉬운 말로 풀어쓴 것이므로 순수 창작이라고 할 수 없는점이 있다.

『심조만유론』의 번역을 앞에 두고 필자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했던 것은 이 책이 알리고자 하는 불교교리 내지는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심조만유론』이라는 제목을 통해 우선 唯識사상이 먼저 떠오르고

¹⁾ 한보광, 「용성스님의 후반기 생애(1)」, 『대각사상』 제3호 (2000), 19쪽.

²⁾ 한용운, 「조선불교의 개혁안」, 『불교』 88호(1931.10), p.8. 김광식, 「일제하의 역경」, 『대각사상』 제5집(2002), 66쪽에서 재인용.

³⁾ 위의 글.

목차 제2편의 제8아뢰야식부터 전 5식에 이르는 식에 관한 자세한 분류 는 그를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니 유식 또는 唯 心4)을 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유식이 표방하고 있는 사상은 유 식종의 유식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대승기신론』의 一心 사상이라는 사 실이 드러났다. 제1편 "세계가 처음 일어남"의 제1장 "세계가 처음 일어 난 원인이 유심(唯心)이라는 것을 분별함"에 이어 시작되는 소제목 "천지 만유가 無上淸淨寶覺法身佛로써 이루어진 것임을 밝힘"이라는 제목이 이 미 유식사상과의 거리를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본문이 시작되면서 이는 다시 一直心大光明贈의 本源性이라는 말로 바뀌 후 유심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本源眞心, 眞心, 大光明藏眞性, 一心, 眞心大法王, 本源眞性, 眞心普光明 軆, 眞心性海, 常寂眞體, 妙明眞心, 本然眞心, 本妙明性, 本具妙明. 眞心 性體, 本源覺性, 無上淸淨本地風光大圓覺性, 覺海, 眞覺性, 眞性, 唯心唯 識, 本源性, 清淨覺性

이를 간추려 보면 크게 心 또는 眞心을 포함한 것(본원진심, 진심대광 명체, 진심대법왕, 진심성해, 묘명진심, 본연진심, 진심성체)과 性 또는 體 를 포함한 것(대광명장진성, 본원진성, 상적진체, 본묘명성, 진심성체, 본 원각성, 무상청정본지풍광대원각성, 진각성, 진성, 본원성, 청정각성)으로 나눠질 수 있으며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覺海와 本具妙明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유심은 진심 또는 진성. 진체. 각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앞에 붙은 수식어인 본원, 묘명, 상적, 청정, 무상청정본지풍광대원 등

^{4) 『}대승기신론별기』에서는 일심과 아리야식을 들어 저 心과 이 識이 무슨 차이가 있 는가라는 답변에서 "심은 넓고 식은 좁은 것이니 심이 2문 내의 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문은 넓고 뜻은 좁으니 생멸문이 두 뜻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 이다"라고 한 것에처럼 유식과 유심의 뜻이 분명히 다르겠으나 용성은 이 둘을 다르게도 쓰고 같게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도 '심조만유론'의 의미 에서 쓸 때는 유식과 유심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은 그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 뒤에 붙은 수식어 대광명체, 대법왕, 성해 등은 동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번역도 진심과 진성, 진체, 각성을 중심으로 그 앞, 뒤에 적절한 방식으로 수식을 해주면 비교적 통일성 있게 번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번역에 있어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은 그 같은 번역어의 선택을 통해서 유식, 또는 유심이 무엇인지, 진심, 진성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용성이 "모든 배울 것이 많은 시대에 한문만 가지고 수 십 년의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또한문명발달의 장애물만 될 것이며 또 수 십 년 동안 한문 공부를 하여서큰 문장이 되었다할지라도 우리 종교의 진리는 알지 못할 것"5)이라고 하면서 역경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글자만의 번역이 아닌 그 뜻을 알리려는 것이 분명하므로 역자로서 유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일일 것이다. 이에 『심조만유론』의 번역에 관한 이번 발표에 있어서 그핵심사상인 '유식'의 뜻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번역의 기술적인 문제와관련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견 번역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어떤 저서를 번역할 때 그 핵심사상을 파악하고 번역하느냐 또는 다만 글자만 번역하느냐 하는 것에는 그 의미 전달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번역의 가장 큰 관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2. 기존의 연구: 유식 사상과 여래장 사상의 대립

기존의 연구에서 용성이 말하는 '유식' 내지는 '진심'이 무엇인가에 대

⁵⁾ 白相奎 역, 『조선글 화엄경』 권 12,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三藏譯會, 1 928) (龍城全集, 12-88). 한보광,「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대각사상』 제5집 (2002), 93쪽에서 재인용.

해서 연구한 것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용성에 대한 연구는 그 생애. 대각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운동, 역경 등의 불교 대중화 활동 등에 대해 서도 아직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특히 용성의 사상에 대 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6) 몇 개 안 되는 연 구 가운데 본 논문과 관련해서 그 중 몇 편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덕진은 「龍城震鐘의 선사상에 관한 일고찰,7)에서 유식이라는 것 은 산하대지와 삼라만상 그리고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제8아뢰야식의 변화작용이기 때문이라고 한8) 용성의 말과, 識을 변화시켜 부처가 되는 것이지 識을 버리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9) 등을 들어 "용성 의 마음에 대한 순수한 精神主義的 입장은 유식사상의 주장과 다른 점을 우리는 발견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용성의 '유식'이 유식사상의 아뢰야식 을 말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반해 신규탁은 「『각해일륜』 분석: 동북 아시아불교의 전통과 관 련하여,10)에서 용성이 아뢰야식에 대해 "망념(妄念)이 문득 일어남에 본 각성(本覺性)이 자연히 가리웠도다"11)라고 한 것과 "진(眞) 망(妄)이 화 합(和合)하여 제팔식(第八識)이 되었으니, 고요하여 허공이 되고, 움직여 서 세계가 된다"12)라고 한 것 등을 들어 용성이 말하는 아뢰야식은 '眞妄 和合識'이고. 유식종에서 말하는 아뢰야식은 '妄識'이라고 하여 용성과 유

⁶⁾ 김광식, 「백용성 연구의 회고와 전망」, 『대각사상』 제16집 (2011), 45쪽.

⁷⁾ 이덕진,「龍城震鐘의 선사상에 관한 일고찰」, 『한국불교학』 제48집, 한국불교학회, 2007.

⁸⁾ 龍城震鐘, 「落草談話」, 『龍城大宗師全集』 제1집, p.432. 이덕진, 위의 글, 492쪽에서 재인용.

⁹⁾ 龍城震鐘,「辨惑辨魔」,『龍城大宗師全集』제1집, p.437. 위의 글에서 재인용.

¹⁰⁾ 신규탁. 「『각해일륜』 분석: 동북 아시불교의 전통과 관련하여」, 『대각사상』 제11 집, 대각사상연구원, 2008.

¹¹⁾ 백용성, 『각해일륜』(제2권)「여섯째, 因緣을 觀하는 것」, 서울: 대중불교장학회, 19 79년, 36-37쪽. 신규탁, 위의 글, 260쪽에서 재인용.

¹²⁾ 백용성, 『각해일륜』(제2권) 49쪽, 신규탁, 위의 글에서 재인용.

식사상의 관련성을 부정했다. 그리고 용성에게 있어 진심의 중요성에 주 목하여 그에게서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생멸이 없으며 능히 만법을 생하 는 것으로서의 '一眞心' 사상을 볼 수 있다고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대 승기신론』에서 영향 받은 것이라고 했다.13) 이어서 『기신론』의 一心은 여래장사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용성이 法性의 상 주불멸을 수용하는 전통적인 '性宗' 내지는 '法性宗'의 교학 체계에서 말 하는 아뢰야식설을 수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용성의 사상을 법성 종의 체계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면서도 신규탁은 용성은 '法性'이라는 말 보다는 실은 '大圓覺體性'이라는 용어를 더 즐겨 쓴다14)고 부언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한보광은 일찍이 용성의 '대각'이 과연 무엇인가를 궁구하 여 그 답을 『심조만유론』과 『각해일륜』에서 찾고자 했다. 그는 용성이 『 심조만유론』에서 마음 이외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불(佛)과 진심(眞心)과 아(我)를 일체(一體)로 보며 심(心) 이외에 부처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고 하여 누구나 각자 가지고 있는 진심을 개발하면 각인(覺人)이 된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15) 이어서 『각해일륜』에서 용성이 대각을 본각. 시각. 구경각을 다 깨친 경지라고 정의하고 그 근본을 '大覺性眞如淸淨心' 등이 라고 하여 대각을 진여청정심으로 이해할 때. 이는 『大乘起信輪』의 여래 장사상(如來藏思想)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胡靜은 「龍城 禪師의'大圓覺性'이해」16)에서 용성의 교학사상은 기본적으로 본래 청정한 진여의 세계가 무명에 의해 가려져 현상계가 전개된다는 진여연기론 내지는 여래장연기론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하며 이런 세계관은 『大乘起信論』의 영향을 받은 선종의 다른

¹³⁾ 신규탁, 앞의 글, 260-261쪽.

¹⁴⁾ 신규탁, 위의 글, 269쪽.

¹⁵⁾ 한보광, 「집중탐구: Ⅱ. 용성선사(龍城禪師)의 사상」, 『월간해인』97호, 1990.03.

¹⁶⁾ 胡 靜, 「龍城 禪師의'大圓覺性'이해」, 『대각사상』 제19호, 대각사상연구원, 2013.

종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다만 용성은 '眞如'대신 '大圓覺性'을 썼다고 하였다.17) 이어서 진여연기설에 대해 진여를 고정된 것으로 또는 실체로 인식하는 것은 연기론 내지는 空사상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진여를 고정적이고 실체적인 것으로생각하는 흐름이 형성됐다고 했다.18)

이상에서 용성의 '유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용성의 '유 식'을 유식학파의 아뢰야식과 연관된 것으로 보는 관점과 그와는 달리 여 래장 사상을 바탕으로 한 진여청정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관점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이제 이들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심조만유 론』에서 말하는 유식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3. 일심 사상에 대한 여래장연기설

『심조만유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이덕진이 용성의 유식을 유식종의 아뢰야식과 다르지 않다고 한 것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신규탁은 이에 대해 용성 자신이 아뢰야식을 진·망혼합식이라고 언급한 것을 들어반박했으나 『심조만유론』 서문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덕진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唯識者는何오

是心이 本然淸淨커늘 云何로 山河大地를 發生하나뇨 天地萬有와 情與無情이 唯識으로 幻變함이니 人이夢에 種種物像을 見하거든 夢見者가 皆是夢識의 所變이라 또한 外로 來한 者가 아니로다

¹⁷⁾ 위의 글, 211-212쪽.

¹⁸⁾ 위의 글, 214쪽.

夢所變과 如하야 現今 天地萬物 情與無情이 唯識으로 現出함을 覺悟할 지로다¹⁹⁾

위의 글에서 보는 것처럼 용성은 이 마음이[是心] 본래 청정한데 어째서 산하대지를 발생시키는 것인가 라고 자문하고 천지만물과 유정, 무정이 모두 오직 식[唯識]으로써 환변(幻變)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마음과 식이 구별된 가운데 마음은 청정심을 가리키고식은 환변하는 아뢰야식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식이 환변해서 천지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유식학파의 아뢰야식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성이 사용한 '유식'이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는 유식학파의 아뢰야식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식사상과 관련해서 본다면 용성은 아뢰야식과 구별해서 청정심이라는 본래의마음을 세우고 있으므로 사상에 있어서는 아뢰야식을 중심으로 하는 유식 사상과는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

몇 줄 뒤에 이어지는 다음의 구절을 보자.

世人이 但 所見所聞相에 執하야 人生의 堅關됨이 唯識임을 不知하는 故로 第一卷에 識數의 相을 畧辨하야 世人으로하야금 心意識에 過患을 知케하고²⁰⁾

『심조만유론』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함에 있어서 법수에 따라 식을 설명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심·의·식(心意識)의 허물을 알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본문에서 식은 8식부터 전5식까지 순서에 따라 차례로 설명돼 있다. 식에 대한 유식학과의 분석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¹⁹⁾ 白相奎, 『心造萬有論』, 三藏譯會, 京城: 新文館, 佛紀2948(1921) (龍城震鐘, 「心造 萬有論」, 龍城大宗師全集 列4집), 4-3, 4-4쪽.

²⁰⁾ 위의 글, 4-4.

것이다. 그러나 8식 앞에 진심성체(宣心性體)를 둠으로써 비록 부석틀은 유식학파의 것이라 하더라도 표방하는 사상은 유식사상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용성의 유식사상이 유식종의 유식사상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덕진 이외의 학자들이 다 유사하게 용성이 『기신론』에서 말하는 진망화 합의 아뢰야식설을 수용했다고 하여 여래장사상을 바탕으로 한 법성종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용성이 아뢰야식을 진망화합식이라고 한 것은 『심조만유론』에서도 발견된다.

此識(=阿賴耶識)이 一邊으로는 眞覺의 贈를 能隱하고 一邊으로는 萬有 의 相을 能發하나니 此는

虚空과 世界와 萬有가 無하고 오즉 眞心性海가 阿賴耶識으로 變軆되는 始初니

此는 始와 終을 말할 수 업느니라21)

아뢰야식이 한편으로는 진각의 체를 감추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 유의 상을 발한다고 하여 진·망의 화합식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 고 이 보다 조금 더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 아뢰야식이 진망화합식이라고 하는 용성의 결정적인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無明은 本覺을依함이니 萬法이다 眞妄和合心을 依하야 發生하나니라 (真妄和合心은 阿賴耶識이 最初에 眞性으로부터 起함으로 眞妄和合心 이라 하나니라)22)

²¹⁾ 白相奎, 『心造萬有論』, 三藏譯會, 京城: 新文館, 佛紀2948(1921) (龍城震鐘, 「心造 萬有論」,龍城大宗師全集 제4집), 4-20\.

²²⁾ 白相奎,『心造萬有論』,三藏譯會,京城:新文館,佛紀2948(1921) (龍城震鐘,「心造 萬有論」,龍城大宗師全集 제4집), 4-27쪽.

진망화합식으로서의 아뢰야식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서는 『대승기신론』으로서 용성이 말하는 아뢰야식이 『대승기신론』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고 있으며 필자도 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다. 그러나 『기신론』의 일심이 여래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대승기신론』 내지는 원효와 용성을 법성종의 전통에서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신규탁은 『대승기신론』의 '一心'을 원효와 법장 모두 '여래장'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점은 대부분의 교학가들도 공감하는 바라고 했고²³⁾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본 논문에서도 한보광과 호정에게서 그 예를 볼 수 있었으나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다 그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고익진과 은정희의 경우에서 그 같은 예외를 볼 수가 있는데 『대승기신론』의 一心二門에 대한 이들의 해석을 봄으로써 용성의 유식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보도록 하자.

4. 일심사상에 대한 중관·유식 종합설

고익진²⁴)과 은정희²⁵)는 둘 다 원효의 『대승기신론별기』의 다음 구절을 들어 『기신론』이 중관과 유식을 화합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그 논의 됨됨이가 세우지 않는 것이 없으며, 깨뜨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데 『중관론(中觀論)』과 『십이문론(十二門論)』 같은 것들은 모두 집 착을 두루 깨뜨리며 또한 깨뜨린 것도 깨뜨리되, 깨뜨린 것(能破)과 깨

²³⁾ 신규탁, 앞의 글, 270쪽.

²⁴⁾ 高翊晋, 「元曉의 起信論疏·別記를 통해 본 眞俗圓融無碍觀과 그 成立理論」, 『불교 학보』제10호, 1973.

²⁵⁾ 殷貞姫,「大乘起信論에 대한 元曉說과 法藏說의 比較」, 『태동고전연구』 제10집, 1993.

뜨림을 당하는 것(所破)을 다시 인정하지 않으니. 이것을 보내기만 하 고 두루 미치지 않는 논이라고 말한다. 또 『유가론(瑜伽論)』과 『섭대승 론(攝大乘論)』 같은 것들은 깊고 얕은 이론들을 온통 다 세워서 법문 (法門)을 판별하였으되. 스스로 세운 법을 모두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주기만 하고 빼앗지는 않는 논이라고 말한다.26)

고익진이 파악한 것과 같이 위의 구절에 나타난 중관과 유식에 대한 원효의 시각은 중관 계통은 망집을 파하는 길에 들어서서 파하고 또 파 하니 긍정할 길이 끊긴 것이고. 유식계통은 세우는 길에 들어서서 세우기 만 하고 버리지 않으니 부정할 길이 끊긴 것이다. 그래서 원효는 『기신론 』이야 말로 이 두 결함을 지양하여 파하지 않음이 없고 세우지 않음이 없어 '군쟁의 평주'라고 높게 평가했던 것이다.27) 고익진에 따르면 중관 과 유식이라는 두 대립적인 철학체계가 『기신론』에서 각각 '진여문'과 ' 생멸문'에 대비되어 이 두 문이 대립을 극복하고 화합의 길을 찾음으로 써 원효에게 있어서 『기신론』은 중관과 유식을 회통시킨 것으로 파악되 었다.

같은 맥락에서 殷貞姬는 「大乘起信論에 대한 元曉說과 法藏說의 比較 _²⁸⁾에서『기신론』에 대한 원효와 법장의 견해를 각각 원효의 중관·유식 설, 법장의 여래장연기설이라고 이름붙이고 그 같은 점과 차이점을 분석 했다. 은정희의 분석에 따르면 원효의 중관·유식설은 기신론의 본의에 충 실한 것으로서 기신론의 一心二門의 구조에 있어서 2문의 心眞如門과 心 生滅門에 각각 중관과 유식을 배대시켰다는 것이다. 그 중 유식의 심생멸

²⁶⁾ T44, p0226 b04-b09. "其爲論也。無所不立。無所不破。如中觀論十二門論等。遍破 諸執。亦破於破。而不還許能破所破。是謂往而不遍論也。其瑜伽論攝大乘等。通立 深淺。判於法門。而不融遣自所立法。是謂與而不奪論也." 번역은 『大乘起信論疏別 記 외』, 김달진 옮김 (동국역경원, 1995), 26쪽을 사용했다.

²⁷⁾ 高翊晋, 앞의 글, 290쪽.

²⁸⁾ 殷貞姬,「大乘起信論에 대한 元曉說과 法藏說의 比較」, 『태동고전연구』 제10집, 1993.

문은 다시 불생불멸의 여래장과 생멸심으로 나뉘며 이 불생불멸과 생멸심이 화합하여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阿梨耶識이라 불리며여기에 다시 각의와 불각의의 두 뜻이 있어 일체법을 포섭한다는 것이다.29) 이렇게 보면 여래장의 불생불멸은 아리야식의 의지처가 되는 동시에 또한 보기에 따라서는 아리야식의 한 양상이 될 뿐이다. 그에 반해 은정희에 따르면 법장의 여래장연기설은 일심과 심생멸문이 각각 두 가지를 포섭하고 있는 이중구조는 등한시하고 다만 여래장이 隨緣하여 아리야식이 된다고 하여 여래장을 아리야식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여래장연기설을 주장하여, 법성종이 당시의 법상종의 유식사상과 독립된 사상체계를 세워야한다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30)

『기신론소』와『기신론별기』에 나타난 원효의『기신론』 이해에 대해 일심과 여래장을 같은 것으로 보아 법성종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해석하는 시각은 위의 고익진과 은정희의 분석에 따르면 『기신론』의 본의에 맞는 원효의 중관·유식설을 내치고 법장의 여래장연기설을 따르는 것이 된다.

『심조만유론』이 『대승기신론』의 영향을 받았고 용성의 유식, 유심 또는 진심이 『기신론』의 일심과 같은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기신론』의 일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심조만유론』을 번역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용성이 『기신론』의 일심에 대한 상반된 해석 가운데 어느 해석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심진여를 통한 일심의 불변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수연하는 여래장을 일심과 같은 위치로 격상시켜서 보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심조만유론』 가운데 진심을 설명한 구절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原夫 一眞心大光明軆의 本源性은 衆相이 空하야 心도 아니오 佛도 아

²⁹⁾ 위의 글, 633쪽.

³⁰⁾ 위의 글, 635-636쪽.

니오 法도 아니오 僧도 아니오 神도 아니오 物도 아니오 虛空도 아니로되 오즉 至大하며 至微하며 至虛하며 至靈하며 至堅하며 至强하며 至柔하야 可히 思議치 못하나니 이 本源真心은 名과 相이 無하되 古今을 貫하며 六合을 圍하며 天地人에 主하며 萬法에 王한지라 蕩蕩하야 그에 比할 것이 업스며 嵬嵬하야 그에 짝할 것이 업도다 天地 先에 在하야 始함이 업고 天地 後에 在하야 終함이 업도다 이真心은 天地가

我로 더불어 同源되고 萬物이 我로 더불어 同軆됨이라31)

이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언설마저도 막힌 자리에 있는 진심의 본원성을 언설로써 표현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술어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들어서 이 모든 것아 다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心도 아니오 佛도 아니오 法도 아니오 僧도 아니오 神도 아니오 物도 아니오 虚空도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아는 모든 속성의 최대치에 이른 것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대립적인 속성의 양쪽 최대치에까지 이른 것으로 표현할수밖에 없다. 至大하면서도 至微하며, 至虛 至靈하면서도 至堅하며, 至强하면서도 至柔해서 우리의 식견으로는 사량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차별을 넘어서 나와 남의 구별이 불가능한 이 자리에서 굳이 나를 찾으려고한다면 '天地가 我로 더불어 同源되고 萬物이 我로 더불어 同軆'32)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용성이 이와 같이 묘사한 본원진심은 가히 『기신론』의 심진여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효가 중관에 부여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원효가 유식사상에 상응한 것으로 본 심생멸문의 불생불멸인 여래장의 자리와는 완연히 다른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심생멸이란 여래장에

³¹⁾ 白相奎,『心造萬有論』,三藏譯會,京城:新文館,佛紀2948(1921)(龍城震鐘,「心造萬有論」,龍城大宗師全集 제4집),4-13에서 4-14쪽.

³²⁾ 선가에 회자되는 유명한 말로 僧肇의 『肇論』에서 유래한다. "天地與我同根 萬物 與我一體", T45 p0159 b28-29.

의하여 생멸심이 있는 것이니 이른바 불생불멸과 생멸이 화합하여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아리야식아라 이름한다"33)라고 한 것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래장의 자리는 아리야식의 의지처가 되는 자 리로서 사량할 수 없는 심진여의 자리와 다르고. 심진여를 포섭하는 佛의 자리인 일심과는 더욱 다르다. 그러므로 『심조만유론』을 비롯한 용성의 저술의 토대가 되고 있는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일심을 여래장과 일치시켜 원효와 용성을 모두 법성종의 전통에 배속시키는 것은 『기신론 』의 일심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법성에 대 해서는 비록 용성이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대원각체성' 등의 다른 말에서 같은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조만유론』에서 '법성'이라 는 말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법성뿐만 아니라 『심조만 유론』에는 '여래장'이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그 의미가 당연히 아뢰야식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만 개념어는 그 사상을 나타내는 데에 중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사상가에게서 그 개념어에 해당하 는 사상을 강조하려면 그의 글에서 그 개념어가 발견돼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용성에게서 여래장 사상과 법성종의 전통을 찾으려는 시도는 그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상 위에서 백용성 대종사의 『심조만유론』의 번역과 관련하여 그 핵심어가 되는 唯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밝혀보았다. 용성에게서 유심은本源眞心, 眞心, 大光明藏眞性, 一心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면서 『대 승기신론』의 일심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33) &}quot;心生滅者,依如來藏故有生滅心,所謂不生不滅與生滅和合,非一非異,名爲阿梨耶識"、T32 p0576 b08-09.

『기신론』의 일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를 여래장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와, 중관과 유식학파의 사상을 종합한 것으로 보는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起信論疏』와 『大乘起信論別記』에 나타난 원효의 시각은 『기신론』을 중관과 유식사상의 종합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서 용성의 『심조만유론』의 유심을 분석한결과 용성에게 있어서 본원진심은 여래장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심진여를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용성이 원효의 중관·유식설의 전통을따르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효와 용성을 법성종의 전통에서 이해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연구가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백용성 대종사, 심조만유론, 대승기신론, 본원진심, 여래장, 심진 여.

Abstract

A Study of Essential Thought of Sim-jo-man-yu-ron upon Undertaking of its Translation into Korean

Sung-Ja Han

Former Research Professor of BK21, Dongguk University

In this article the essential thought of *Sim-jo-man-yu-ron* (The *Mind Creates Everything*, 『心造萬有論』) written by Master Yongseong was examined upon undertaking its translation into Korean. It is well known that the concept of Mind Only (唯心) used by Yong-seong is based on One Mind (一心) of *The Awakening of Mahayāna Faith* (大乘起信論). He also expressed it in other words such as 本源真心,真心,大光明藏真性,一心. However, there are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as to the meaning of One Mind in *The Awakening of Mahayāna Faith*, one is to see One Mind as the same as tathāgata-garbha, the other is to view it as a synthesis of Madhyamaka and Yogācāra. This article shares the latter view which is drawn from Wonhyo's interpretation of *The Awakening of Mahayāna Faith*.

This article then examined the meaning of Mind Only in Yongseong and came to the conclusion that Original True Mind (本源真心), or Mind Only by Yongseong does not refer to Tathāgata-garbha, but means Suchness aspect of One Mind, following Wonhyo's interpretation of One Mind as the synthesis of Madhyamaka and Yogācār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critical position to the

one-sided understanding of both Wonhyo and Yongseong as following the school of Dharma Nature.

Key Words: Yongseong, The Mind Creates Everything, The Awakening of Mahayāna Faith, original true nature, tathāgata-garbha, suchness aspect of mind

* 참고문헌

- 『起信論疏』, Taisho Tripitaka Vol. 44, No. 1844, CBETA 電子佛典 V1.12 (Big5) 普及版, 完成日期: 2009/04/23.
- 『大乘起信論別記』, Taisho Tripitaka Vol. 44, No. 1845, CBETA 電子佛典 V1.12 (Big5) 普及版, 完成日期: 2009/04/23.
- 白相奎、『心造萬有論』、三藏譯會、京城: 新文館、佛紀2948(1921).
- 龍城震鐘,「心造萬有論」, 龍城大宗師全集 제4집.
- 高翊晋, 「元曉의 起信論疏·別記를 통해 본 眞俗圓融無碍觀과 그 成立理論」, 『불교학보』제10호, 1973.
- 김광식, 「일제하의 역경」, 『대각사상』 제5집, 대각사상연구원, 2002.
- _____, 「백용성 연구의 회고와 전망」, 『대각사상』 제16집, 대각사상연구원, 2011. 『大乘起信論疏別記 외』. 김달진 옮김, 동국역경원, 1995.
- 朴海鐺, 「元曉의 障碍理論」, 『태동고전연구』 제8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 소, 1992.
- 신규탁, 「『각해일륜』 분석: 동북 아시불교의 전통과 관련하여」, 『대각사상』 제11 집. 대각사상연구원. 2008.
- 원순스님, 『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 대승기신론 원효소 별기』, 법공양, 2010.
- 殷貞姬、「大乘起信論에 대한 元曉說과 法藏說의 比較」、『태동고전연구』 제10집, 1993.
- 이덕진,「龍城震鐘의 선사상에 관한 일고찰」,『한국불교학』 제48집, 한국불교학 회, 2007.
- 丁永根,「「大乘起信論」의 無明 理解」, 『태동고전연구』 제4집, 한림대학교 태동 고전연구소, 1988.
- 학담,「龍城震鍾禪師의 圓頓律사상과 禪律兼行의 선풍」,『대각사상』제10집, 대각 사상연구원, 2007.
- 한보광, 「집중탐구: Ⅱ. 용성선사(龍城禪師)의 사상」, 『월간해인』 97호, 1990.03.
- _____, 「용성스님의 후반기 생애(1)」, 『대각사상』제3집, 대각사상연구원, 2000.

논문투고일: 2012.10.14. 심사완료일: 2012.11.25. 게재확정일: 2011.12.24.